



낙태 예방 공익 캠페인 메시지 연구 공포소구와 메시지 주체를 중심으로*

조수영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효과적인 낙태 예방 및 원치 않는 임신 예방 공공 캠페인을 실행함에 있어 캠페인 메시지의 주체와 공포소구의 강도에 따라 수용자가 느끼는 위협과 효능감의 지각 및 메시지 수용 혹은 거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는 2(메시지 주체: 아기/생명의 소중함 vs. 여성/여성건강 손실) × 2(공포소구 강도: 고 vs. 저) 개체 간 온라인 실험 연구로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메시지 주체는 위협의 지각에 차이를 만들지 않았으나, 공포소구의 강도는 위협의 지각에 영향을 미쳤다. 즉, 공포소구가 높을수록 수용자들은 낙태가 위험하며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높은 공포소구 집단은 낮은 공포소구 집단보다 낙태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동시에 메시지에 대한 저항과 회피도 더 높았다. 낙태 예방 공익 캠페인 메시지의 경우 공포수준이 높으면 수신자들이 심리적으로는 메시지를 회피하면서도 이로 인해 낙태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메시지 주체는 수용자의 메시지 수용/거부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임신이나 낙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고, 낙태가 위험하다고 생각할수록, 더불어 낙태 예방에 대한 효능감이 높을수록 낙태 예방을 위해 피임을 하겠다는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KEY WORDS 낙태 예방 공익 캠페인 • 병행과정 확장 모델 • 공포 소구
• 여성 건강

* 본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인문사회기초연구사업 신진연구자지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8024510).

** sooyoungcho@gmail.com

1.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태아가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낙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들 중 하나로 꼽힌다. 2010년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는 16만9천 명에 이른다. 2008년은 24만1천 명, 2009년은 18만8천 명으로 추정되었던 것에 비하면 그 수는 점차 줄고 있지만 낙태율은 아직도 높은 편이며 우리사회의 낮은 신생아 출산율을 감안할 때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0).

낙태는 사회적,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슈이다. 과거, 산아제한 정책이 있던 시기에 낙태는 인구조절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며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장치는 낙태에 대한 의견 대립을 심화시켰다. 낙태의 찬반을 둘러싼 대립은 전통적으로 아기의 생명 존중을 중시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옹호론(pro-life)과 여성의 임신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중시하는 선택옹호론(pro-choice)으로 나뉜다(Pechesky, 1984; Siegel, 1992). 낙태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심각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아기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위해 피임과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낙태 예방 관련 교육과 공익 캠페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낙태 예방 공익캠페인은 보건복지부의 ‘작지만 생명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사라집니다’(보건복지부, 2011), ‘태아에게 생명을’(낙태반대운동연합, 2003)과 같이 아기의 생명 존중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태 예방 캠페인에서 생명의 소중함만을 강조하는 기존 메시지가 과연 최적인지 의문점을 제기한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견이 없겠지만, 낙태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서 기존 소구 형태가 최적인지, 다른 소구방법의 효용성은 어떠한지 테스트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명 존중 메시지와 함께, 메시지 주체를 여성에 집중하여 낙태가 여성 건강(여성의 몸, 정신건강, 삶)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둔 소구방식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두 가지 소구방법을 비교하고자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두 가지 근거가 태아도 생명이기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낙태는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낙태예방 공익 캠페인에서 생명존중에 대한 메시지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여성 건강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성 건강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낙태 예방 캠페인의 주요 타겟인 여성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쉬울 수 있으며 기존 캠페인 방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메시지 주체 비교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공익 캠페인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공포소구의 효과를 두 번째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공포소구는 건강관련 공익 캠페인에서 효과적인 설득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포소구의 위협 강도의 효과에 대한 결론은 연구마다 다양하다. 즉, 너무 강한 수준의 위협은 수용자에게 거부나 회피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위협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인 연구들이 있는 반면(Backer, Rogers, & Sopory, 1992; Janis & Feshbach, 1953), 일부 연구들은 위협의 강도가 높을수록 설득 효과도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시훈·홍창선, 2004; Latour & Pitte, 1989; Vincent & Dubinsky, 2005). 건강 캠페인들에 공포소구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e.g., 금연, 금주, 암, 에이즈 등) 그 효과도 검증되고 있으나, 유독 한국의 낙태 예방 공익 캠페인에는 공포소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낙태라는 가뜩이나 불편한 주제에 공포소구까지 사용해서 수용자의 반감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서인지 모른다. 본 연구는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시행되어 왔던 기존 낙태 예방 캠페인 메시지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간 다른 많은 캠페인에서 사용되어 왔던 공포소구가 낙태 예방 주제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인 메시지 주체 프레이밍과 공포소구의 효용을 검증하기 위해, 위티(Witte, 1992)의 '병행과정 확장 모델(EPPM: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을 적용하였다. 병행과정 확장 모델은 공포소구 메시지의 수용 및 거부 과정을 설명하며, 공포동인 모델, 병행과정 모델, 보호동기 모델 등 공포소구의 효과를 설명하는 초기 모델들을 통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병행과정 확장 모델은 그간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많이 적용되어 왔다(e.g., Witte, Cameron, & Nzyuko, 1995; Gore & Bracken, 2005). 본 연구에서는 해당 모델이 공포소구의 효과를 알아보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낙태 방지 캠페인 메시지의 주제와 공포소구의 강도에 따라 수용자가 느끼는 위협과 효능감의 지각 수준이 어떠한지, 이러한 지각수준이 메시지 수용 및 거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낙태에 관한 입장과 관련 연구들

낙태에 대한 입장은 크게 아기의 생명을 중시하는 생명옹호론(pro-life)과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중시하는 선택옹호론(pro-choice)으로 나뉜다(Pechesky, 1984; Siegel, 1992). 그 중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옹호론은 주로 종교계와 보수단체에서 제기되어 왔는데, 태아는 하나의 생명이자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낙태를 살인 행위로 간주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선택옹호론은 주로 여성계와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과 결정 권리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전통적으로 낙태에 대한 논의는 여성의 선택에 대한 권리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라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으로 조명되어 왔는데, 이를 본 연구 주제인 “낙태 예방”에 비추어 보면,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와 여성의 몸에 대한 보호, 즉, 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권리 및 의무(낙태로 인해 여성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실)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이 두 가지는 낙태를 반대할 때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중요한 이유들이다. 낙태라는 이슈를 어떻게 프레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낙태에 대해 전혀 다른 감정과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Tankard, 2001), 낙태 예방에 대한 설득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 즉, 여성 건강에 초점으로 두느냐 혹은 태아의 생명의 권리를 초점으로 두느냐에 따라 수용자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간 한국에서 시도되어 온 낙태 예방 메시지는 모두 생명 존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메시지 주체를 여성 건강으로도 확장해 그 효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캠페인 방향을 다각화하려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낙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법적 관점(김래영, 2009; 이은영 등, 2010), 여성학적 관점(양현아, 2010; 정진주, 2010), 기독교적 관점(이경직, 2007; 박상은, 2000)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과학 분야에서 낙태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이정환, 2011)와 20대 미혼자의 낙태 의도(이정기 등, 2011)에 대한 연구들이 있지만 효과적인 낙태 예방 메시지를 위한 변인에 집중된 미디어 관련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외국도 비슷한데, 낙태관련 외국문헌들 또한 법적, 그리고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다루어진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 미디어 분야에서는 언론이 낙태를 어떻게 프레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 소수 있다(e.g., Swenson, 1990). 저출산률로 인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효과적인 낙태 예방 캠페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낙태 예방 캠페인 기초를 위해 메시지 주체(아기 생명의 존엄성 vs. 낙태로 인한 여성 건강의 문제)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공익 캠페인에서 공포소구의 효과

공포소구는 건강관련 공익 캠페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소구방식 중 하나이다. 공포소구란 “커뮤니케이터의 결론을 채택하고 준수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초래되는 비우호적인 결과를 묘사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Hovland, 1961)으로서,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위협적인 메시지를 제시하여 설득하는 방법이다(이시훈·홍창선, 2004). 공익캠페인에 있어 공포소구는 다른 소구 방식들보다 설득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왔으나(Latour, Snipes & Bliss, 1996; Thorson & Friestad, 1985; Witte & Allen, 2000), 그 효과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공포소구의 강도와 설득 효과 사이의 부적인 관계를 보여주는데(Backer, Rogers, & Sopory, 1992; Janis & Feshbach, 1953), 너무 높은 강도의 공포소구 메시지는 불안감을 일으키고 긴장을 강화시켜 오히려 수용자로 하여금 해당 메시지를 회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Henthorne, Latour, & Natarajan, 1993; Keller & block, 1996). 반면, 다른 연구들에서는 공포소구의 강도와 설득 효과 사이의 정적인 관계를 주장한다(이시훈·홍창선, 2004; Latour & Pitte, 1989; Vincent & Dubinsky, 2005). 예를 들어 파상풍과 관련된 실험 연구에 따르면 낮은 위협보다 높은 수준의 위협이 태도변화와 행동의도, 행동적 순응을 더 많이 이끌어냈고(Dabbs & Leventhal, 1966), 공포소구를 사용한 공익 광고에 대한 인지도와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도 높은 수준의 공포소구 광고가 수용자의 인지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성, 1993).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공포소구의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이를 두 번째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공포소구는 수많은 건강 관련 공익 캠페인(금연, 각종 암, 에이즈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져 온 설득 소구 중 하나이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시행된 낙태 예방 캠페인은 공포소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낙태 예방이라는

주제에서도 공포소구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두 독립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병행과정 확장모델(EPPM)에서 설명하고 있는 변인들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3) 병행과정 확장모델(EPPM)

공포소구에 대한 연구는 초창기 모델인 ‘공포동인 모델(Fear-As-Acquired Drive Model)’로부터 시작되었다. 공포동인 모델은 공포가 동인(drive) 역할을 하여 행동변화를 일으키며, 중간 수준의 공포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Hovland, Janis, & Kelly, 1953; Janis & Feshbach, 1953). 이후 등장한 ‘병행과정 모델(Parallel Process Model)’은 공포동인 모델이 인간의 감정적인 측면만 강조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포소구 메시지는 감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반응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Leventhal, 1970, 1971). 공포동인 모델과 병행과정 모델에 이어 등장한 ‘보호동기 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은 심각성, 취약성, 그리고 메시지에 노출된 후 갖는 지각된 반응 효능감과 자기 효능감과 같은 4가지 개념을 통해 공포소구 메시지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Rogers, 1975, 1983). 보호동기 이론에서는 공포소구 메시지를 접한 수용자가 그 위협이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며, 자신은 그 위협에 취약하며, 메시지에서 권고된 행동이 위협으로부터 수용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면 수용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동기가 형성되고 행동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Rogers, 1975; 차동필,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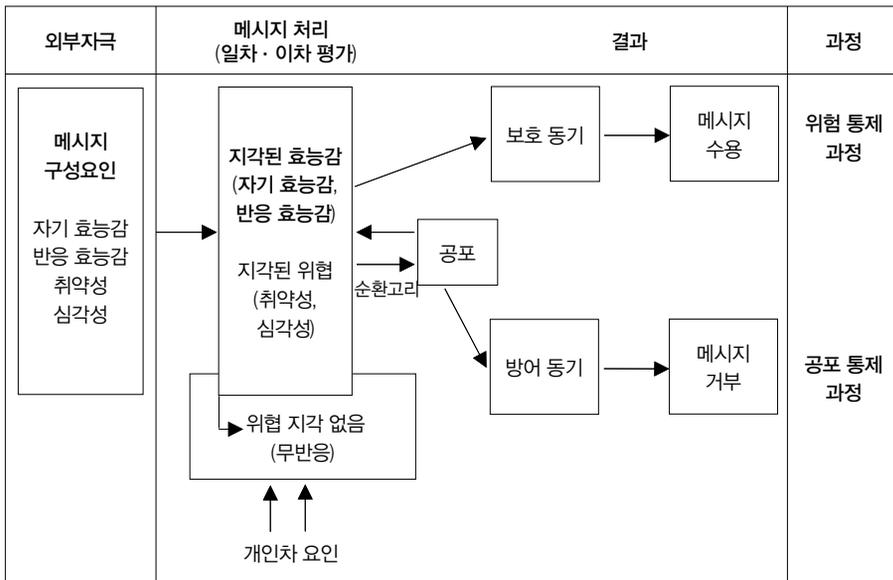
그러나 보호동기 이론의 모델은 수용자가 언제, 왜 메시지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제약점을 갖는데(Witte, Meyer, & Martell, 2001),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자 소개된 이론이 ‘병행과정 확장 모델(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이하 EPPM)’이다 (Witte, 1992). EPPM은 공포소구 관련 이론적 관점들을 통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차동필, 2005). 모델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외부 자극인 공포소구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메시지 처리 과정으로서 메시지를 평가하는데, 이때 이 과정에서 위협에 대한 평가와 권고 반응의 효능감에 대한 평가라는 두 가지 인지적 평가를 하게 된다고 제안한다. 이를 토대로 메시지에 대한 위협 지각이 없을 시에는 무반응(no response)이 발생하며, 위협을 인지했을 시에는 지각된 위협과 지각된 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메시지를 수용하는 위험통제반응(danger control process) 또는 메시지를 거

부하는 공포통제반응(fear control process)이 발생한다(〈그림 1〉 참고).

‘지각된 위협’은 공포소구 메시지의 위협이 심각하고 중요한 수준인지에 관한 ‘지각된 심각성’과 자신이 그 위협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을 지에 관한 ‘지각된 취약성’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각된 효능감’은 권고된 행동을 함으로써 위협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인 ‘지각된 반응 효능감’과 스스로 권고 반응을 이행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인 ‘지각된 자기 효능감’으로 구성된다(차동필, 2006).

위협통제반응은 공포소구 메시지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행하여 위협을 통제하려는 반응을 의미하며, 지각된 위협과 지각된 효능감이 모두 높을 때 발생한다. 반면, 공포통제반응은 공포소구 메시지 자체를 거부하며 방어적으로 회피하는 것인데, 이는 높은 지각된 위협과 낮은 지각된 효능감 상황에서 발생한다(차동필, 2005). 즉, 수용자가 위협은 인지하였지만 권고사항을 스스로 이행할 수 없다고 믿을 때 발생하는 것이 공포통제반응이라 할 수 있다. EPPM은 공포소구 메시지는 수용자가 높은 위협과 함께 권

그림 1. 병행과정 확장 모델(EPPM)



출처: Witte, K. (1998), Fear as motivator, fear as inhibitor: Using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to explain fear appeal success and failures. In P. A. Andersen and L. K. Guerrero (Eds.), *The Handbook of Communication and Emotion* (p. 432), New York: Academic Press. 차동필 (2006) 재인용

고사항에 대한 높은 효능감을 지각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가정한다.

EPPM을 적용한 기존 연구들은 헬스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 중 하나는 케냐의 매춘부와 트럭운전수들을 대상으로 한 FGI로, 연구 참가자들이 에이즈에 대한 지각된 위협은 높았지만 예방책인 콘돔 사용에 대한 지각된 효능감이 낮아 결과적으로는 공포통제반응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Witte, Cameron, & Nzyuko, 1995). Witte, Cameron, Lapinski, & Nzyuko(1998)의 에이즈 예방 캠페인에 사용된 포스터, 팸플릿 등을 내용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기존 에이즈 예방 캠페인은 위협에 대한 메시지만 강조되었을 뿐, 효능감을 고려한 메시지는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막염 관련 실험연구에 따르면, 공포소구 메시지에서 지각된 위협과 효능감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 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보였다(Gore & Bracken, 2005). 이와 같이 EPPM을 적용한 관련 연구들은 공포소구 메시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협과 효능감의 지각이 모두 중요하다는 결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포소구를 이용한 공익광고 캠페인에서 위협의 강도는 설득의 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너무 위협적인 내용만을 담은 채 효능감과 관련된 요소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저 위협적인 메시지로만 인식되어 수용자들이 메시지를 회피하게 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Rogers, 1987; Witte, 1992). 공포소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협과 효능감 정도가 모두 높은 고위협/고효능감 유형의 메시지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설득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Witte & Allen, 2000). 따라서 효과적인 설득 효과를 갖는 공익광고 캠페인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고위협/고효능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PPM을 본 연구의 주제인 낙태 예방 메시지 전략에 적용해 보면, 효과적인 캠페인을 위해서는 낙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위협과 권고된 예방법에 대한 높은 수준의 효능감 지각이 요구되어질 것이다. 효능감의 중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그 간 많이 증명되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피임방법에 대한) 메시지를 모든 실험 컨디션에 포함시켜 효능감 포함여부로 인한 메시지 처리과정에서의 차이는 없애고, 메시지 주체(아기 vs. 여성)에 따라 효능감과 위협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그간의 낙태 예방 공익 메시지들은 주로 생명 존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낙태 예방 메시지의 타겟은 주로 가임기 여성인데, 메시지에서 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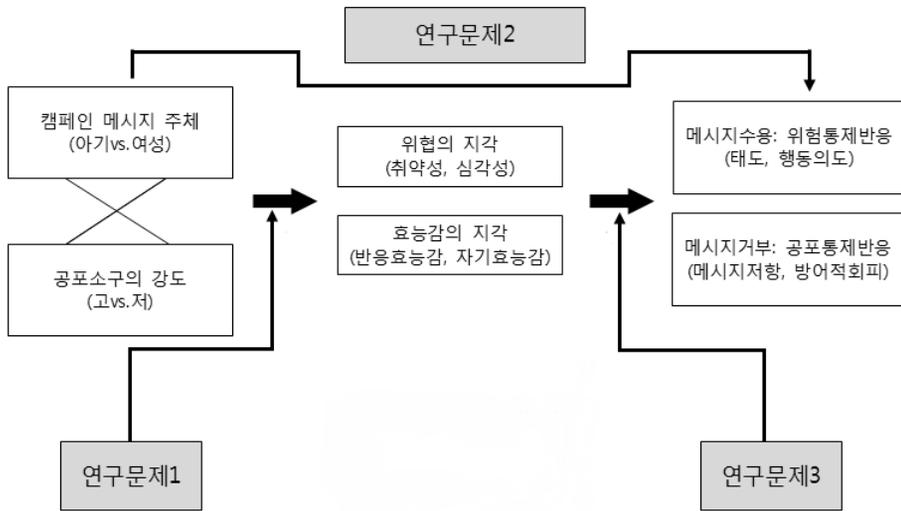
태가 자신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을 때 효능감이나 위협 지각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시지 주체를 다양화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어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슷한 논리로 공포소구의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미 효능감 관련된 메시지가 포함된 상태에서 공포소구의 고지가 위협 지각뿐만 아니라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EPPM이 공포소구의 효과에 주로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독립변인을 메시지 주체로도 확장하여 독립변인 간 상호작용도 살펴보았다(연구문제 1). 두 독립변인이 메시지 처리과정에서 위협이나 효능감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메시지 수용이나 거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도 살펴보았다(연구문제 2). 마지막으로, EPPM관련 연구들에서는 고위협/고효능감이 메시지 수용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차동필, 2006, Witte & Allen, 2000), 위협과 효능감의 지각이 메시지 거부/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위협의 지각과 효능감의 지각 중 어느 것이 영향력이 더 큰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연구문제 3). 본 연구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낙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낙태 예방을 위한 공익 캠페인 전략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낙태 예방 캠페인 메시지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의를 가진다.

3. 연구문제 및 연구 모형

- 연구문제 1: 낙태 예방 캠페인 메시지 주체(아기vs. 여성)와 공포소구의 강도(고vs. 저)가 위협과 효능감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메시지 처리)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낙태 예방 캠페인 메시지 주체와 공포소구 강도가 메시지 수용 및 거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위협의 지각(취약성, 심각성)과 효능감의 지각(반응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메시지 수용(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낙태를 하지 않으려는 행동의도)과 메시지 거부(메시지 저항, 방어적 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2. 연구모형



4.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메시지 주체(아기의 생명 vs. 여성의 건강)와 공포소구의 강도(고 vs. 저)에 따른 낙태 예방 캠페인 메시지의 효과를 알아보려고 했다. 연구는 2X2 개체 간 온라인 실험으로 설계되었다. 연구 대상은 4개의 실험집단 [‘아기(주체)/고(공포)’, ‘여성(주체)/고(공포)’, ‘아기(주체)/저(공포)’, ‘여성(주체)/저(공포)’]으로 나누어졌으며, 실험 집단은 공익광고 형식으로 제작된 1분여 영상을 온라인으로 보았다(〈표 1〉 참고).

아기를 메시지의 주체로 한 영상 실험물은 낙태로 인한 아기의 생명 위협을 주제로,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아기는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하며 낙태는 살인행위일 수 있다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여성을 주체로 한 실험물은 낙태로 인해 여성의 몸과 정신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낙태의 휴유증과 같은 여성 건강에 중점을 두어 구성되었다. 두 가지 실험물에는 모두 낙태 방지를 위한 피임의 중요성과 피임법 안내가 마지막에 포함되었다.

공포수준으로 나누었을 때, 아기를 주체로 한 높은 수준의 공포소구는 ‘낙태는 살

표 1. 실험 피험자 집단의 유형 및 최종분석에 사용된 집단 별 분포 (총 374명)

유형	구분	내용
A	실험집단1	아기*공포소구 고(총92명: 미혼-49, 기혼-43, 종교0-47, 종교X-45)
B	실험집단2	여성*공포소구 고(총94명: 미혼-52, 기혼-42, 종교0-45, 종교X-49)
C	실험집단3	아기*공포소구 저(총95명: 미혼-54, 기혼-41, 종교0-45, 종교X-50)
D	실험집단4	여성*공포소구 저(총93명: 미혼-49, 기혼-44, 종교0-43, 종교X-50)

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낙태된 태아의 모습으로 구성되었고, 낮은 수준의 공포(공포소구 거의 없음)는 '태아에게 생명을'이라는 문구와 함께 엄마 뱃속에 평화롭게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구성되었다. 여성 주체의 높고 낮은 수준의 공포소구도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영상물의 공포 수준은 영상에 제시된 시각적 표현(사진 슬라이드 방식)뿐 아니라 효과음과 공익광고의 카피 수준으로도 차별화하였다(〈표 2〉 참고).

실험 자극물인 공익 캠페인 영상은 약 1분가량으로, 실험영상물을 피험자가 중간에 건너뛰고 설문에 응답할 수 없도록 조작하였다. 참가자들은 실험영상물을 본 후 위협/효능감의 지각 및 메시지 수용과 거부에 대한 질문에 차례로 답하였다. 본 실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적 패널을 가진 리서치 회사에 의뢰하여 20~40세 여성, 총 400여명이 각 100명씩 4개의 실험집단에 배치되었다. 이 때 각 집단별로 나이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에 나이를 물어본 질문을 체크한 결과, 각 집단의 나이에 분포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에 공포스러운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험 참가 전에 이 부분에 대해 경고하여 참가자들이 실험 참여를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 실험영상물은 최초 제작 후 공포수준과 메시지 주체에 대해 수용자들이 구별할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본 온라인 실험 전에 20~30대 여성 약 20여명을 통해 조작물 점검을 하였으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애매한 부분은 수정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작물의 독립변인에 대해 구분할 수 있는지 체크하였다. 이후 본 실험에서는 설문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공포수준(고/저)과 메시지 주체(아기/여성)를 잘 구분했는지 질문하였고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경우는 최종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표 2. 실험 자극물 유형

구분	메시지 주체(아기/여성)	공포소구(고/저)
집단1	아기	고
	사진(태아 사진), 언어표현(인공임신증절은 내 아이를 죽이는 '살인'입니다.)	사진수위(낙태된 태아모형 등), 음악(긴장감 높은 음악), 효과음(총소리 등), 언어표현(살인과 같이 강한 표현)
집단2	여성	고
	사진(임산부 사진), 언어표현(인공임신증절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망치는 '자살' 행위입니다.)	사진수위(낙태 수술 장면 등), 음악(긴장감 높은 음악), 효과음(비명소리, 총소리 등), 언어표현(자살 등)
집단3	아기	저(공포소구 거의 없음)
	사진(아기사진), 언어표현(아이에게 생명을 주세요.)	사진수위(평화로운 아기사진 등), 음악(평화로운 음악), 효과음(거의 없음), 언어표현(아기는 생명이라는 것 강조)
집단4	여성	저
	사진(여성사진), 언어표현(인공임신증절은 여성의 건강을 망칩니다. 당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주세요.)	사진수위(임산부 사진 등), 음악(평화로운 음악), 효과음(거의 없음), 언어표현(여성의 건강 강조)

2) 종속변인의 측정

(1) 위협의 지각

위협의 지각은 취약성과 심각성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 취약성은 ‘자신이 낙태 혹은 낙태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을 인지하는 정도’로, 심각성은 ‘낙태 혹은 낙태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심각하게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위협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위터 등의 척도를 연구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Witte, 1996; Witte, Mayer, & Martell, 2001), 아기와 여성이 모두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아기와 여성이 각각 주체가 되는 질문을 모두 포함시켰다.

표 3. 위협의 지각

취약성	나도 원치 않은 임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7점 척도
	나도 낙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인공적으로 아기의 생명을 없애는 낙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나도 내 건강에 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낙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심각성	나는 낙태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낙태가 아기의 생명을 죽이는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나는 낙태가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2) 효능감의 지각

효능감의 지각은 반응효능감과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 반응효능감은 ‘피임 행위를 함으로써 낙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로, 자기효능감은 ‘피임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능감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위티 등의 척도를 연구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Witte, 1996; Witte, Mayer, & Martell, 2001).

표 4. 효능감의 지각

반응효능감	피임을 하면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	7점 척도
	피임을 하면 낙태를 예방할 수 있다.	
	피임을 하면 낙태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효능감	나는 낙태 예방을 위한 피임방법을 손쉽게 알 수 있다.	
	나는 낙태 예방을 위한 피임을 할 수 있다.	
	피임을 하는 것은 나에게 어렵지 않다.	

(3) 캠페인 메시지 수용: 위협 통제 반응

위협통제반응은 낙태 예방 캠페인 메시지를 수용하려는 반응으로써, 메시지 노출 후의 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낙태를 하지 않으려는 행동의도를 형성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머레이-존슨 등(Murray-Johnson, et al., 2001)이 사용했던

질문과 차동필(2006)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아기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이 주제가 된 질문을 추가하였고 일부 문항은 역코딩되었다.

표 5. 메시지 수용: 위험통제반응

낙태에 대한 부정적 태도	낙태는 나쁜 것이다.	7점 척도
	낙태를 할 수도 있다. (역코딩)	
	여성의 상황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역코딩)	
	아기의 상태에 따라 낙태를 할 수도 있다. (역코딩)	
	낙태는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나쁜 행위이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다.	
낙태를 하지 않으려는 행동의도	나는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해 피임을 하겠다.	
	나는 낙태 예방을 위해 피임을 하겠다.	
	나는 낙태를 하지 않겠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를 하지 않겠다.	

(4) 메시지 거부: 공포 통제 반응

공포통제반응은 낙태 예방 메시지의 주장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메시지에 대한 저항(캠페인 메시지에 대한 부정적 태도)과 방어적 회피(메시지를 피하는 행동)로 구성하였다. 공포통제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위험통제반응과 마찬가지로 머레이-존슨 등(Murray-Johnson et al., 2001)이 사용했던 질문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표 6. 메시지 거부: 공포통제반응

메시지 저항 (메시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이 메시지는 너무 자극적이다.	7점 척도
	이 메시지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방어적 회피	이 메시지를 보았을 때 낙태에 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 메시지를 보았을 때 낙태 예방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종속변인의 신뢰도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종속변인의 신뢰도(Cronbach's α)

위험의 지각	취약성	.919	.738
	심각성	.847	
효능감의 지각	반응효능감	.908	.888
	자기효능감	.898	
메시지수용 (위험통제반응)	태도	.787	.821
	행동의도	.653	
메시지거부 (공포통제반응)	메시지저항	.925	.899
	방어적회피	.709	

5. 연구결과

최종분석에는 스크리닝 질문을 통과하지 못한 피험자 26명을 제외하고 총 374명의 응답이 분석되었다(메시지 주체: 아기 N=187, 여성 N=187, 공포소구: 고 N=186, 저 N=188). 우선 메시지 주체에 관한 스크리닝 질문을 구분하지 못한 피험자를 모두 제외 한 후, 공포소구의 강도에 대한 스크리닝을 위해 10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실험자극물과 반대되는 극단적인 값(1, 2, 3, 혹은 8, 9, 10)을 선택한 피험자를 제외한 후(이들은 최종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비교한 두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공포소구 고: M=6.05, 공포소구 저: M=3.83, $p=.000$). 실험 참가자 374명 중 결혼 여부는 미혼이 204명(54.5%), 기혼이 170명(45.5%)으로 미혼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종교가 있는 피험자는 180명(48.1%), 종교가 없는 피험자는 194명(51.9%)이었고, 월 가구 수입도 200만 원 미만부터 700만 원 이상까지 골고루 분포되었다(<표 1> 참조).

<연구문제 1>은 메시지 주체와 공포소구 강도가 위험 및 효능감 지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위험의 지각(취약성, 심각성)과 효능감의 지각(반응효능감,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위험의 지각의 경우, 메시지 주체(아기 vs. 여성)는 취약성($p=.769$)과 심각성($p=.721$)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공포소구의 강도도 위험의 지각 중 취약성에는 유의미한

표 8. 기술통계량(위험의 지각)

변인		취약성		심각성	
메시지주체	공포소구	M	SD	M	SD
아기	고	4.10	1.58	5.81	1.07
	저	3.88	1.51	5.42	1.10
여성	고	3.92	1.50	5.82	.97
	저	3.97	1.53	5.49	1.01
합계	고	4.01	1.54	5.81	1.02
	저	3.92	1.52	5.45	1.05

표 9. 분산분석(위험의 지각)

변인	취약성				심각성				
	소스	df	MS	F	p	df	MS	F	p
Intercept	1	5888.569	2497.820	.000	1	11865.75	10940.76	.000	
메시지주체(아기/여성)	1	.204	.087	.769	1	.139	.128	.721	
공포소구(고/저)	1	.717	.304	.582	1	12.038	11.099	.001	
메시지주체*공포소구	1	1.744	.740	.390	1	.051	.047	.829	
오차	370	2.357			370	1.085			
합계	374				374				

영향이 없었지만($p = .582$), 심각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포소구 고: $M = 5.81$, 저: $M = 5.45$, $p = .001$). 독립변인 간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취약성: $p = .390$, 심각성: $p = .829$)(〈표 8〉, 〈표 9〉 참고).

효능감의 지각에 대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 결과를 살펴보면, 메시지 주체와 공포소구 강도 모두 반응 효능감(메시지 주체: $p = .742$, 공포소구: $p = .855$)과 자기 효능감(메시지 주체: $p = .140$, 공포소구: $p = .15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응효능감에 대해서는 독립변인 간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나($p = .117$), 자기 효능감의 경우 독립변인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3$)(〈표 10〉, 〈표 11〉 참고). 흥미롭게도, 메시지 주체가 아기일 경우, 높은 공포소구의 조건보다

표 10. 기술통계량(효능감의 지각)

변인		반응 효능감		자기 효능감	
메시지주체	공포소구	M	SD	M	SD
아기	고	5.88	1.06	5.31	1.37
	저	6.06	1.00	5.78	1.10
여성	고	6.01	.92	5.79	1.02
	저	5.86	.93	5.66	1.09
합계	고	5.94	.99	5.55	1.22
	저	5.96	.97	5.72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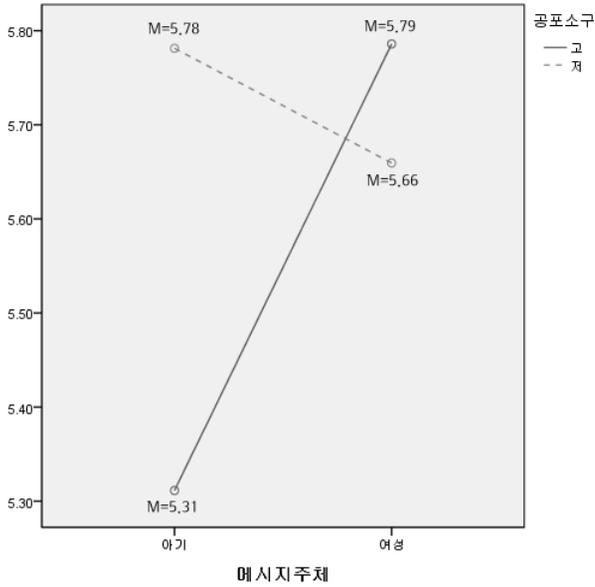
표 11. 분산분석(효능감의 지각)

변인	반응 효능감				자기 효능감				
	소스	df	MS	F	p	df	MS	F	p
Intercept	1	13240.56	13726.39	.000	1	11867.82	8926.901	.000	
메시지주체(아기/여성)	1	.105	.109	.742	1	2,908	2,187	.140	
공포소구(고/저)	1	.032	.033	.855	1	2,754	2,072	.151	
메시지주체*공포소구	1	2,382	2,469	.117	1	8,311	6,252	.013	
오차	370	.965			370	1,329			
합계	374				374				

(M=5.31) 낮은 공포소구의 조건(M=5.78)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메시지 주체가 여성일 경우에는 높은 공포소구의 평균(M=5.79)이 낮은 공포소구의 평균(M=5.6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그림 3〉 참고).

〈연구문제 2〉는 메시지 주체와 공포소구 강도가 메시지 수용 및 메시지 거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메시지 수용(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낙태를 하지 않으려는 행동의도)과 메시지 거부(메시지 저항, 방어적 회피)에 대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메시지 수용의 경우, 메시지 주체는 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p=.073)와 낙태를 하지 않으려는 행동의도(p=.847)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으나, 공포소구의 강도는 행동의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

그림 3. 자기효능감의 추정된 주변평균



으나($p = .411$), 태도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공포소구 고: $M = 4.15$, 공포소구 저: $M = 3.93$, $p = .010$). 태도와 행동의도에 대한 독립변인 간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태도: $p = .324$, 행동의도: $p = .575$)(〈표 12〉, 〈표 13〉 참고).

표 12. 기술통계량(메시지 수용)

변인		태도		행동의도	
메시지주체	공포소구	M	SD	M	SD
아기	고	4.19	.92	5.34	1.08
	저	4.05	.79	5.31	.85
여성	고	4.12	.78	5.41	.83
	저	3.80	.89	5.27	.93
합계	고	4.15	.85	5.37	.96
	저	3.93	.85	5.29	.89

표 13. 분산분석(메시지 수용)

변인	태도				행동의도				
	소스	df	MS	F	p	df	MS	F	p
Intercept	1	6093,744	8430,417	.000	1	10627,15	12258,54	.000	
메시지주체(아기/여성)	1	2,332	3,226	.073	1	.032	.037	.847	
공포소구(고/저)	1	4,842	6,698	.010	1	.588	.679	.411	
메시지주체*공포소구	1	.706	.977	.324	1	.273	.315	.575	
오차	370	.723			370	.867			
합계	374				374				

다음으로 메시지 거부를 살펴보면, 메시지 주체는 메시지 저항 ($p=.058$), 방어적 회피에 대한 영향력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p=.427$). 반면 공포소구의 강도는 메시지 저항(공포소구 고: $M=5.05$, 공포소구 저: $M=3.26$, $p=.000$), 방어적 회피(공포소구 고: $M=4.21$, 공포소구 저: $M=3.23$, $p=.000$)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즉, 높은 공포소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보다 강하게 메시지에 저항했으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간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메시지 저항: $p=.369$, 방어적 회피: $p=.195$)(〈표 14〉, 〈표 15〉 참고).

표 14. 기술통계량(메시지 거부)

변인		메시지 저항		방어적 회피	
메시지주체	공포소구	M	SD	M	SD
아기	고	4,98	1,34	4,36	1,37
	저	3,07	1,42	3,19	1,29
여성	고	5,12	1,42	4,07	1,39
	저	3,47	1,30	3,26	1,15
합계	고	5,05	1,38	4,21	1,38
	저	3,26	1,37	3,23	1,22

표 15. 분산분석(메시지 거부)

변인	메시지 저항				방어적 회피				
	소스	df	MS	F	p	df	MS	F	p
Intercept	1	6460,438	3398,663	.000	1	5176,108	3022,898	.000	
메시지주체(아기/여성)	1	6,884	3,622	.058	1	1,083	.632	.427	
공포소구(고/저)	1	295,868	155,648	.000	1	91,340	53,344	.000	
메시지주체*공포소구	1	1,538	.809	.369	1	2,889	1,687	.195	
오차	370	1,901			370	1,712			
합계	374				374				

〈연구문제 3〉은 위협의 지각(취약성, 심각성)과 효능감의 지각(반응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 메시지 수용(태도, 행동의도)과 메시지 거부(메시지 저항, 방어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첫째, 취약성($\beta = -.351$, $p=.000$)은 메시지 태도에 부적 영향을, 심각성($\beta = .445$, $p=.000$)은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응 효능감과 자기 효능감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취약성($\beta = -.362$, $p=.000$)은 부적 영향을, 심각성($\beta = .280$, $p=.000$)과 자기 효능감($\beta = .313$, $p=.000$)은 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메시지 저항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분석 했을 때, 오직 취약성($\beta = .187$, $p=.000$)만이 유의미한 정적변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방어적 회피의 경우, 4개의 변인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표 16〉 참고).

표 16. 회귀분석

	태도(β)	t	p	df	F	R ²
취약성	-.351	-8,280	.000	4	49,094	.347
심각성	.445	10,337	.000			
반응효능감	-.035	-.666	.506			
자기효능감	-.006	-.123	.902			

	행동의도(β)	t	p	df	F	R ²
취약성	-.362	-8,811	.000	4	57,418	.384
심각성	.280	6,694	.000			
반응효능감	.077	1,501	.134			
자기효능감	.313	6,165	.000			
	메시지 저항(β)	t	p	df	F	R ²
취약성	.187	3,689	.000	4	5,871	.060
심각성	-.082	-1,591	.113			
반응효능감	-.083	-1,319	.188			
자기효능감	-.036	-.575	.566			
	방어적 회피(β)	t	p	df	F	R ²
취약성	.050	.964	.336	4	1,692	.018
심각성	-.037	-.705	.481			
반응효능감	-.073	-1,133	.258			
자기효능감	-.051	-.797	.426			

6. 결론 및 논의

심각한 저출산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지만 낙태 및 원치 않은 임신예방을 위한 공익 캠페인 관련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낙태 예방 공공 캠페인을 실행함에 있어 캠페인 메시지의 주체와 공포소구의 강도에 따라 수용자가 느끼는 위협과 효능감의 지각 및 메시지 수용 혹은 거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위티(Witte, 1992)의 '병행과정 확장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 모델은 공포소구와 관련된 이론적 관점을 통합한 모델로서 수용자가 공포소구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메시지 처리 과정에서 위협과 효능감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하게 된다. 이후에 지각된 위협과 지각된 효능감이 모두 높을 때는 위협통제 반응을 통해 해당 메시지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거나, 공포소구 메시지를 거부/방어하는 공포통제반응을 통해 메시지 자체를 거부한다. 이러한 공포통제반응은 지각된 위협이 높고 지각된 효능감이 낮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은 두 독립변인이 위협의 지각(취약성, 심각성)과 효능감의 지각(반응 효능감, 자기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는데, 메시지 주체는 위협의 지각에 차이를 만들지 않았으나, 공포소구의 강도는 위협의 지각 중 심각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포소구가 높을수록 수용자들은 낙태가 위협하며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이는 높은 공포가 사람들의 낙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킨다는 점에서 공포소구의 인지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의 두 독립변인은 효능감 지각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본 실험에서 자아효능감을 따로 독립변인으로 처치하지 않고 4개의 실험집단에게 실험 자극물을 제시할 때 모두 피임의 중요성과 피임법 안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자기 효능감에서 두 독립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흥미롭게도 메시지 주체가 아기일 때, 낮은 공포소구가 높은 공포소구보다 자기 효능감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시지 주체가 여성으로 묘사된 낙태 예방 광고를 본 수용자들의 경우 일시적으로 공익광고에 나타난 여성과 동일시가 일어나 메시지의 공포 수준에 따라 자아효능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메시지 주체가 아기이고 공포수준이 높은 공익광고를 본 수용자들은 메시지에 대한 저항으로 자기효능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연구문제 2>는 두 독립변인이 메시지 수용(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낙태를 하지 않으려는 행동의도)과 메시지 거부(메시지 저항, 방어적 회피)에 주는 영향을 살펴해보았는데, 흥미롭게도 공포소구의 강도는 메시지 수용 태도와 메시지 거부(메시지 저항과 방어적 회피 모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포소구가 높은 광고를 본 수용자들은 낮은 광고를 본 수용자들보다 낙태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동시에 메시지에 대한 저항과 회피도 더 높았다. 하지만 공포소구의 고저는 피임을 하고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행동의도에는 차이를 만들지 않았는데, 행동의도의 경우, 공포소구 고저나 메시지 주체에 상관없이 모든 그룹에서 5점 이상의 상당히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즉, 실험참가자들은 메시지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로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포소구의 효과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상반된 주장을 모두 지지한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공포소구의 강도가 크면 불안감을 일으키고 긴장을 강화

하여 수용자가 해당 메시지를 회피하게 만든다며 공포의 강도와 설득 효과사이에 부적 인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는 반면(Backer, Rogers, & Sopory, 1992; Henthorne, Latour, & Natarajan, 1993; Keller & Block, 1996; Janis & Feshbach, 1953), 또 다른 학자들은 공포소구의 강도와 설득 효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이시훈·홍창선, 2004; 김영성, 1993; Dabbs & Leventhal, 1966; Latour & Pitte, 1989; Vincent & Dubinsky, 2005),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두 주장을 모두 지지한다. 이는 낙태라는 주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즉, 낙태라는 주제자체가 한국인의 정서에 이미 상당히 부정적인데, 공포 소구가 높은 메시지는 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공포소구의 낙태관련 메시지를 보면 더욱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종류의 메시지는 해당 메시지를 회피/거부하고자 하면 메시지 주장에 대한 설득 효과가 떨어질 수 있지만, 낙태 공익 캠페인 메시지의 경우 공포수준이 높아 수신자들이 심리적으로는 메시지를 회피하고자 한다고 해도 이로 인해 낙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낙태 예방 캠페인의 목적)으로 보인다.

기존 EPPM 이론은 메시지 수용과 메시지 거부를 반대의 개념으로 보지만, 본 연구결과를 반추해 보면 메시지 종류 혹은 주장에 따라 수용-거부 개념이 꼭 상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이미 매우 부정적인 주제를 다루는 공익 메시지의 경우, 메시지의 수용과 거부 개념이 비슷하게 함께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주에 대한 해악을 다루는 공익 메시지는 음주에 대한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음주의 해악에 대한 공익 메시지를 거부하거나 혹은 수용하거나 극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낙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낙태 예방 캠페인에 대한 수용-거부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들은 주제에 따라 수용-거부 개념이 상반되게 나타나는지 혹은 본 연구처럼 공존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증명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독립변인 중 하나인 메시지 주체(여성 vs 아기)에 따라서는 수용자의 메시지 수용과 거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낙태에 관련된 사회적 담론은 생명 존중에 대한 옹호 그리고 여성의 선택 권리에 대한 옹호가 같이 공존하는 데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 예방 공익 캠페인은 아기를 주제로 생명 존중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한정적이다. 연구자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는, 이의가 있을 수 없

는 부분인데 기존 낙태 예방 캠페인이 생명 존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특히 현 낙태 예방 캠페인은 공포소구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어렵고 설득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메시지 주체를 여성으로 확장하여 여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낙태의 위험성을 강조한 메시지를 구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본 연구결과에서 생명의 소중함이나 여성의 건강 손실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 간 효과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메시지는 여성 건강 중심으로 전개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은 위협과 효능감의 지각 요인들이 메시지 수용과 거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았는데, 위협의 지각 중 심각성은 메시지 수용(태도와 행동의도)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취약성은 메시지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메시지 저항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자기효능감은 행동의도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PPM에서는 지각된 위협과 지각된 효능감이 모두 높을 때 위협통제반응(공포소구 메시지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행하여 위협을 통제하려는 행동변화)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차동필, 2005). 즉, 권고된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결과는 임신예방을 위해 피임을 하고 낙태를 하지 않으려는 행동의도에 지각된 위협(취약성의 경우 부적 영향, 심각성의 경우 정적 영향)과 지각된 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EPPM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즉, 여성들이 자신이 원치 않는 임신이나 낙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고(부적 취약성) 낙태가 위험하다고 생각할수록(정적 심각성), 더불어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이 피임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효능감이 높을수록 낙태 예방을 위해 피임을 하겠다는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EPPM가설에서는 취약성과 심각성이 높으면 메시지에서 제안한 행동을 따르려는 높아진다고 예측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흥미롭게도 취약성이 낮을수록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취약성과 자기 효능감 개념의 연관성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낙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낙태 예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취약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기존 EPPM의 예측과 본 연구 결과의 차이는 주제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질병의 경우, 자신이 해당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높다고 해도 해당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취약성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영양섭취를 하고 정기검진을 받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암에 걸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원치않는 임신이나 낙태를 예방하려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여성이라면 자신이 해당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이 높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은 낮을 것이고 이것이 제안된 행동의도에 보다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EPPM에서 제시된 변인의 가설과 예측은 연구의 주제에 따라 조금씩 그 양상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편, EPPM에서는 취약성과 메시지 저항사이에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스스로 취약성이 높다고 인식하면 메시지에 대해 위협을 느껴 저항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 저항이 높을 경우 행동의도가 낮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 취약성이 높을 때, 행동의도가 낮아지는 것은 이렇듯 메시지 저항성과 행동의도와의 부적관계에서 설명할 수도 있겠다.

EPPM에서는 또한 지각된 위협이 높고 효능감은 낮을 때 공포통제반응(공포소구 메시지를 거부하며 회피)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는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결과는 EPPM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데, 자신이 원치 않는 임신/낙태를 경험할 가능성(취약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메시지를 거부하려는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효능감은 메시지 거부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대체로 본 연구결과는 위협의 지각과 효능감의 효과를 지함으로서 EPPM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실제 캠페인 제작에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낙태 예방 공익 캠페인의 경우 공포소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반면, 본 연구결과는 공포소구가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높은 공포소구는 수용자에게 제시될 때 다소 거부감을 줄 수 있지만 낮은 공포소구(혹은 공포소구 없음)와 비교해 수용자에게 낙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 궁극적으로 피임 의도나 낙태를 하지 않으려는 행동의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캠페인 실행 시 공포소구의 적절한 사용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더불어, 그간에는 생명의 존엄성에만 초점을 맞춘 캠페인이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여성 건강 손실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도 진행하여 메시지의 다양성을 꾀하고 그 효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데 그 첫 번째는 공포소구 강도에 대한 본 실험의 조작 및 정의다. 본 실험에서는 높은 공포소구와의 확실한 대비를 위해 낮은 공포소구

메시지에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픽적, 음향적 요소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용자에 따라서는 본 연구의 낮은 공포소구를 공포소구 없음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 진행되는 낙태 예방 캠페인은 공포소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 실험의 낮은 공포소구 조건은 공포소구적 요소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작되었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공포소구 없음-낮은 혹은 중간 크기의 공포소구-높은 공포소구와 같이 공포소구를 3단계로 조작하여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보다 유용할 것이다. 두 번째, 본 연구는 공포소구에 대한 수용자의 인지적 평가과정을 설명하는 EPPM을 기반으로 했으나, 공포소구이외에도 메시지 주체를 또 다른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여, 순수하게 공포소구의 효과를 EPPM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EPPM을 순수하게 검증했다기보다는 EPPM에서 설명한 변인들을 연구 주제에 적용시켰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연구들은 낙태 예방 관련 캠페인에 적합한 다른 변인들과 이론들도 적용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실험 진행 시 피험자들이 가지고 있는 낙태에 대해 기존 태도를 물어보고 이를 변수로 고려하여 피험자들의 기존 태도가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조절변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성들을 주요 피험자로 설정하여 진행했다. 낙태 결정은 때때로 인간관계의 다양한 정치적 요소가 작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남성(남편 혹은 파트너)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향후 연구들은 낙태 예방 캠페인에 대한 남성들의 인지적 평가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여성들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참고문헌

- 김래영(2009). 낙태의 자유와 태아의 생명권. *법학논총*, 33권 1호, 111~135.
- 김영성(1993). *공익광고에 있어서 위협소구의 효과의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10).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
- 보건복지부(2005).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 보건복지부(2008).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개발 및 법적 정비방안 연구*.
- 성한기(1996). 대학생들의 성(性)에 관한 태도와 행동. *대구카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52권, 207~229.
- 손애리·천성수(2006). 전국 대학생의 성의식, 첫 성경험 및 성행동에 대한 성차. *보건과 사회과학*, 18권, 73~100.
- 양현아(2005). 여성 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한국여성학*, 21권 1호, 5~39.
- 양현아(2010). 낙태에 관한 다조점 정책의 요청: 생명권 대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한국여성학*, 26권 4호, 63~100.
- 오선주(1996). 낙태경험 유무별로 본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4권 4호, 227~247.
- 이민진·양윤(2007). 공포수준, 공포유형 및 자기감시가 공익광고의 설득효과에 미치는 영향. *광고연구*, 187~212.
- 이숙경(1999). *낙태 보고서: 연애에 나타난 권력 지형도,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 동년.
- 이시훈·홍창선(2004). 위협의 강도와 불안수준에 따른 위협소구 광고의 효과 연구. *광고연구*, 62권, 130~131.
- 이은영·김소윤·손명세·이일학(2010). 낙태 관련 의사결정의 합리화: 각국의 낙태 상담절차와 규정. *한국의료법학회지*, 18권 1호, 105~124.
- 이정환(2011). 낙태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한국사회과학연구*, 33권 1호, 193~202.
- 이진희·도선재(2008). 위협소구 강도에 따른 공익광고의 효과: 낙관적 편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19권 6호, 243~257.
- 정진주(2010). 유럽 각국의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 *페미니즘연구*, 10권 1호, 123~158.
- 조아미(2000).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교육적 시사점*. 한국청소년개발원
- 차동필(2005). 공포소구 모델 EPPM의 예측력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27권 3호, 91~114.

- 차동필(2006). 공포소구 메시지의 위협과 효능감 수준에 따른 설득효과: 공포소구 모델 EPPM의 적용.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411~436.
- 차동필(2007). 공포소구 메시지에서 위협과 효능감의 역할: 승수적 관계, 혹은 합산적 관계?. *한국광고홍보학보*, 9권 2호, 339~363.
- 하철은(2006). *온라인게임 중독 수준에 따른 공포소구 효과 연구: 확장된 병행반응모델(EPPM)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허은주(2004).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 변인과 성태도 및 성지식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재경(2001).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과 성태도 및 성행동과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허태균·한민·김연석(2004). 성행위시 위험감수 의사결정에서 남녀차이: 콘돔사용과 계획된 행동이론. *한국심리학회지:여성*, 9권 3호, 69~87.
- 호선민(2009).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acker, T. E., Rogers, E. M., & Sopory, P. (1992). *Designing health communication campaigns: What works?* Newbury Park, CA: Sage.
- Dabbs, J., & leventhal, H. (1966). Effects of varying the recommendations in a rear arousing commun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525~531.
- Darian, J. C. (1993). Social marketing and consumer behavior: Influencing the decision to reduce alcohol consumption. *Advanced in Consumer Research*, 20, 413~418.
- Gore, T. D., & Bracken, C. C. (2005). Testing the theoretical design of a health risk message: Reexamining the major tenets of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Health Education & Behavior*, 32(1), 27~41.
- Henthorne, T. L., Latour, M., & Natarajan, R. (1993). Fear appeal in print advertising: An analysis of arousal and ad response. *Journal of Advertising*, 22, 59~69.
- Hovland, C. I. (1961).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ovland, C., Janis, I., & Kelly, H. (1953).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 Janis, I. & Feshbach, S. (1953). Effects of fear-arousing communic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8, 78~92.
- Keller, P. A., & Block, L. G. (1996). Increasing the persuasiveness of fear appeal: The effect of arousal and elabor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 448~459.

- Latour, S. M., Snipes, L. R., & Bliss, J. S. (1996). Don't be afraid to use fear appeals: An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March/April, 59~67.
- Latour, M. S., & Pittes, R. F. (1989). Using fear appeals in advertising for AIDS prevention in the college-age population. *Journal of Healthcare Marketing*, 9(3), 5~14.
- Lazdane, G. (2005). Abortion in Europe: Ten years after Cairo. *Entre Nous*, 59, 4~7.
- Leventhal, H. (1970). Findings and theory in the study of fear communication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 119~186.
- Leventhal, H. (1971). Fear appeals and persuasions: The differentiation of a motivational construct.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61, 1208~1224.
- Murray-Johnson, L., Witte, K., Liu, W-Y., Hubbell, A. P., Sampson, J., & Morrison, K. (2001). Addressing cultural orientations in fear appeals: Promoting AIDS-protective behaviors among Mexican immigrant and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and American and Taiwanes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6, 335~358.
- Petchesky, R. P. (1984). *Abortion and Woman's Choi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Rogers, R. W. (1975). A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of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Psychology*, 91, 93~114.
- Rogers, R. W. (1983). Cognitive and physiological process in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 A revised theory of protection motivation. *Social Psychophysiology*, 153~176.
- Sedgh, G., S. Henshaw., S. Sindgh., E. Ahman, & Shah. (2007). Induced abortion: estimated rates and trends worldwide. *Lancet*, 370(13), 1338~1345.
- Siegel, R. B. (1992). Reasoning from the body: A historical perspective on abortion regulation and question of equal protection. *Stanford Law Review*, 44, 261~381.
- Swenson, J. (1990, August). *News coverage of the abortion issue: Framing changes in the 1980s*. Paper presented to the Committee on the Status of Women, AEJMC, Minneapolis, MN.
- Tankard, J. W. (2001). The empir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media framing. In Reese, S. D., Gandy, O. H., & Grant, A. E. (Eds.),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p.96). Taylor & Francis.
- Thorson, E., & Friestad. (1985). Advertising: Sold on emotion. *Psychology Today*, 19(3), 89.
- Vincent, A. M., & Dubinsky, A. J. (2005). Impact of fear appeals in a cross-cultural context. *The Marketing Management Journal*, 15(1), 17~32.
- Witte, K. (1992). Putting the fear back into fear appeals: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Communication Monographs*, 59, 329~249.

- Witte, K. (1998). Fear as motivator, fear as inhibitor: Using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to explain fear appeal success and failures. *The Handbook of Communication and Emotion*, 423~450.
- Witte, K., & Allen, M. (2000). A meta-analysis of fear appeals: Implications for effective public health campaigns. *Health Education & Behavior*, 27(5), 591~615.
- Witte, K., Cameron, K. A., Lapinski, M. K., & Nzyuko, S. (1998). A theoretically based evaluation of HIV/AIDS prevention campaigns along the trans-Africa highway in Kenya.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 317~341.
- Witte, K., Cameron, K. A., & Nzyuko, S. (1995). HIV/AIDS along the Trans-Africa Highway in Kenya: Examining risk perceptions, recommended responses, and campaign materials. Report submitted to the ALL-University Research Initiative Grant Program,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MI.
- Witte, K., Meyer, G., & Martell, D. (2001). *Effective Health Risk Messages: A Step-by-step Guide*.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최초투고일 2014년 11월 30일

심사일 2015년 1월 12일

게재확정일 2015년 1월 20일

Abstract

A Study on an Effective Anti-abortion Public Campaign Message

Cho, Sooyoung

Ph.D.,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Based on the core concepts suggested in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EPPM), this research examined the effects of a subject of a message (fetus-focused vs. women's health-focused anti-abortion PSA) and the degree of a fear appeal (high vs. low-level of fear) used in an anti-abortion PSA on an individual's self-efficacy, response efficacy, susceptibility, and severity, furthermore, the individual's danger control (accepting the PSA) vs. fear control (rejecting the PSA). A 2 X 2 between design onlin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women aged between 20-40.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subject of message variable did not create differences on DVs, whereas the degree of the fear used in the PSA have an effect on the severity: Watching a high-level of fear described in the anti-abortion PSA increased an individual's sense of severity toward an abortion. Watching a high-level of fear also made a participant more negative toward abortion (danger control) at the same time, rejected the anti-abortion PSA (fear control). The research also found a low-level of susceptibility, high level of severity, and high-level of self-efficacy are effective components of the danger control. In other words, including those components in the anti-abortion PSA would be more effective to make women accept the anti-abortion PSA. Applying EPPM, the research examined the elements that make an effective anti-abortion public campaign message.

KEYWORDS Anti-Abortion PSA •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 Fear Appeal